**1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 생각하다**

포인트

스피드화 시대의 도래에 의하여, 현대인의 생활은 매우 바빠졌다. 오른손에 햄버거, 왼손에 콜라와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이 세계 구석구석 침투해 가고 있다. 간단하고 손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스턴트 식품의 대부분이 합성보존료와 착색료 덩어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나쁠 것은 일목요연하다.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식생활과 건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벼라고 해도 영양이 없다면 벼도 질 것이기 때문에….

본문

건강식품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관심 있는 일일 것이다. 농산물이 잘 자라는 것은 물론 품종이 좋다고 하는 종(種)의 문제도 있지만, 땅 속에서 흡수하는 영양소가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요한 영양소인 식품에, 여러가지 인공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얌전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예로부터 만병특효약이라는 인삼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그 점에서 건강에 관하여서는 예로부터 선진국이었을 것이다. 건강식품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자.

**2 풍족한 생활과 돈의 유혹**

포인트

현재, 세계의 경제체제의 흐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동서 대립 시대로부터 자본주의가 일단 승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는, 나쁘게 말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경제체제이다.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다. 누구나 보다 좋은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해서 적은 돈을 받는 것보다, 편하고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돈의 유혹」에는 약하다.

본문

돈

어느덧 인류는 사회를 형성하여 물물교환을 하던 것부터 화폐경제 형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욱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더욱 빈곤해져서 사회에 계층이 생겼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가진 자는 자신의 재산을 확보하여, 더욱 재욕을 부려 「돈의 망자」화 되어간다. 그와는 반대로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불만을 가지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볼 테마이다만, 자본주의의 폭주를 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이러한 사화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만, 그럼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인간」으로서의 길을 잊지 않도록 이 「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3 기쁘고 여유 있는 생활이란?**

포인트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도, 자가용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매일매일의 생활을 만끽하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퍼지고 있다.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는 생활이란 「창조성」을 낳는 법이다. 역사적으로도 정치, 경제가 안정된 시대일수록 훌륭한 문화, 예술의 결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 그것은 명백하다,

본문

레저를 즐겁게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 레저를 즐기러 다니고 싶은 법이다. 항상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더 깊이 접하고 싶다. 젊으면 젊을 수록 호기심은 왕성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만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살아간다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 득이다. 배려와 미소로 접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인격에 포용된다. 인생은 즐겁게 사는 편이 좋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TV게임이나 노래방이나 자신의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 실력이 없기만 한다면 의욕이 나지 않는다. 레저는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휴식 시간을 가지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즐거워 질 것이며,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여도 친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정신상태가 안정된다는 데이터가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레저에는 누군가 파트너가 있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어찌됐든 최고로 즐기기 위해서는 최고의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에 참가하는 자신도 역시 최고인 것이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청춘과 지식편향의 학교교육**

포인트

학생시절은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기쁨과, 그저 신나게 논 기억이 남아 있을 것이다만, 이윽고 사춘기를 맞이하여 이성에 관심이 생길 무렵이 되어, 곧 찾아오는 것이 「수험전쟁」이다. 사랑을 하면 공부가 소홀해져 학력이 떨어진다. 정조적 발육이 지성을 방해한다고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는 교육열 높은 엄마에게 공부, 공부 소리만 듣는다.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다. 누구나 겪는 「수험전쟁」이라는 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본문

수험전쟁

고교시절이라고 하면, 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가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에 관심도 있고, 사고방식도 상당히 어른에 가까워진다. 예전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가 끝나면 「황금알」이라고 불리며 취직했을 정도이니 사회에 나가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 가수도 10대에 데뷔하는데다, 악기를 사서 락밴드를 결성하여 음악을 즐기는 자도 많다. 고교야구 등의 스포츠도 공부 걱정 이외에는 다 잊고 순수하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어찌됐든 청춘시대의 한복판으로서, 어떠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싶은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시기에 공부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것이다. 그런 여러 유혹에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5 여성미는 최고의 예술인 것인가**

포인트

「미인은 이득인가? 손해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미인인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남성은 야성적인 육체미를 여성은 신비적인 위로의 미를 성의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미녀와 야수」라고 흔히 말한다. 그런데 「미녀」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에 미적 가치 기준을 둔 것인가? 남성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성미」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본문

미스 콘테스트

인간은 미를 추구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큰 충격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미는 자 속에서 한없이 존재한다. 또 예술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에도 다양한 미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미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것을 감상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 미와 감성이 부합하였을 때 그 감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테마로 돌려보면, 어찌됐든 여성은 스스로 아름다워지기 위해 실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 그에 대한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 1일 24시간, 사무실에서도 카페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화장을 고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은 남성대로 자신의 외모는 둘째치고 눈에 들어오는 여성의 모습에 이러니저러니 순위를 매기거나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평가이다. 거기서 보다 보편적인 평가를 부여하려고 한 것이 미스 콘테스트이다만, 프로의 지도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개성을 갈고 닦고, 또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려운 평가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일 것인가. 여성의 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6 추천도서와 악서(悪書)추방운동추진**

포인트

책을 익는 것은 좋은 일이다만, 최근의 출판 붐에 따라 그냥 팔리면 그만이라는 쾌락적인 내용의 책인 점포 앞에 늘어서게 되었다. 덕분에 서점은 아이들에게 딱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의 마음은 백지의 책과 같다. 좋은 책에서나, 나쁜 책에서나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서점에 간다고 해서 맘 편히 손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것만 것 아닐 것이다. 아이의 교육 측면에서라도 수많은 서적 중에서 고른 추천도서의 설정과 악서추방운동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본문

독서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많이 읽어라」라고 입에서 신내가 나도록 말씀하시고는 했다. 처음으로 240페이지 정도 되는 단행본을 다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다 읽었을 때의 감동이 각별했다. 그 때, 마지막까지 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연히 깨달았다. 덕분에 나는 독서가 좋아졌다. 독서의 세계에서는 스토리 안의 「주인공과의 만남」이 있고,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리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이라고는 하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소설을 통한 만남 또한 그렇다. 그 작가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자!」

**7 「도둑질」은 인류 전체의 과제이다**

포인트

미국에 여행가기 전에 주의를 들은 적이 있다. 주머니에 돈을 준비해두라는 것이다. 일본인은 쉽게 표적이 되므로, 만약, 돈을 갈취 당할 상황이 오면 얼른 돈을 주고, 그리고 손목시계 등도 넘기라는 것이다. 어줍잖게 저항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도둑질」은 인류전체의 과제이다. 자신이 좋으면 상대가 불행해져도 상관없다는 이기심이 낳는 업보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인격교육이 절실하다.

본문

도둑과 유괴 사건

「남을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하라」라는 속담이 있다만, 인간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의심만 하다가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실제로 나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오늘은 「도둑과 유괴 사건」을 테마로 삼고자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당연히 나쁜 짓이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 있어 「도둑질」은 간음, 살인과 더불어 삼대악 중 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람은 정말 배가 고프면, 살기 위해서 빵을 원하게 되는 법이다. 육체의 고통에 빠졌을 때에는 아무리 해도 「이성」이라는 것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도둑에게도 할 말은 있다」라는 속담도 있다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동정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죄가 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둑처럼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아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유괴하여 돈을 요구하는 비인도적 유괴 사건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없다. 유괴사건은 일본에서는 「오오쿠보 키요시 사건」이나 「요시노부짱 사건」 등이 유명하다.

**8 싸움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가?**

포인트

흔히 일본인과 한국인의 싸움이 비교되고는 한다. 일본에서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큰 소리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말로 하면 충분히 알만한 작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쓸모 없다고 할 수 있을 소모전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인은 내향적이고 목소리가 작지만, 한국인은 외향적이고 목소리가 매우 크다. 섬나라와 반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보통, 일본인은 감정적으로 대립할 경우, 나중에도 기분이 나쁘지만 한국인은 싸움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다.

본문

싸움 방법

싸움은 이해(利害)의 대립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만, 되도록이면 말로 회피,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법이다. 일본에는 「싸움 쌍방 처벌」이라고 하여, 싸웠을 경우 쌍방을 벌하는 방법을 흔히 취한다. 하지만 이래서는 올바른 쪽이 불쌍하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서는 언제까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우수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가르침일 것이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이 사고방식은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주의로도 보여지지만, 어떤 악인이라고 이 사상 앞에서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갭이 있는 것이 현실 세계이다. 약육강식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이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인류투쟁사라고 말은 잘 했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싸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

**9 아부도 정도껏 해!**

포인트

사람은 누구나 아부를 들으면 기쁠 것이다. 남 욕하기는 쉬워도, 남 칭찬하기는 꽤나 어렵다. 중국의 옛날 이야기에 의하면, 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째서인지 긴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맛있는 요리를 서로 상대의 입까지 넣어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서비스 정신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윤활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일본어회화 수업에서는 요리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말로써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 맘껏 칭찬하여 천국에 있는 기분에 빠져보자!

본문

매력 있는 사람

인간은 크게 나눠 12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지구에는 60억 명의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저마다 다른 사고를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걷고 있다. 그럼 더 다양한 타입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만,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의 4종류 밖에 없는 것처럼, 「성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형태」도 역시 크게 나누어 12가지 틀에 딱 정리된다고 한다, 지구가 태양 주의를 365일에 걸쳐 돌고, 원의 각도가 360도, 시계 바늘이 12시간 동안 한 바퀴. 이 세상이 이러한 수리(数理)성이 있는 세상이다 보니, 인간의 성격이 12타입으로 분류되는 것도 납득이 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사람도 있다. 타입이 여러가지 있으므로, 인간관계도 변화가 있어서 즐겁다. 그나저나 당신에게 있어 매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10 일본인은 서비스 정신 세계 제일**

포인트

일본인의 친절함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길을 물으면 반드시 멈춰 서서 친절히 가르쳐 준다. 그 중에는 굳이 그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 주는가 하면, 하나는 일본인에게는 서로 돕는 정신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본인은 상대의 입장에서 매사를 생각하는 정신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점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해서 딱 잘라 거절하지 못 하는 것이 옥에 티이다.

본문

작은 친절•큰 참견

사람은 누구나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기쁜 법이다. 인간의 정이란 재미있는 것으로, 아무리 이기주의인 사람이라도, 성심성의 가득한 대우를 받으면 자연히 호의적으로 맘을 바꾸고 싶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이란 마음의 성장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만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많이 받는 편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기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100% 받고 있다. 엄마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아기의 감수성은 풍부해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독」하다고 생각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것이다.

**11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포인트

일본의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기를 때 「남자는 우는 거 아냐」라고 한다. 또, 아버지는 「남자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뿐이다」라고 흔히 말한다. 일본인은 남 앞에서 우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 민족 같다. 부끄러우니까라던가, 체면이 있으니까라는 등의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눈물을 참으며 더 깊은 마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대조적인 것이 「한국인의 눈물」이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그대로 눈물로 나타난다. 매우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눈물

「고개를 들고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떠올리는 봄날. 외로운 밤.」이라는 사카모토 큐의 노래가 있다. 그는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 가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985년 8월. 비행기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이 사고는 전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래서 이번 테마는 「눈물」이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여러 드라마가 있고, 희노애락이 엮여져 간다. 아마 표정이 풍부한 사람은 마음의 폭도 넓을 것이다. 사람은 물론 슬플 때에는 눈물을 흘린다.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도 눈물을 흘린다. 즉,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픔」을 느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슬플 때 뿐만은 아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정 맘으로부터 기쁠 때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 이건 「영광의 눈물」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감동이 충만한 증거이다. 당신은 언제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12 술은 백약의 으뜸인가? 악마의 물인가?**

포인트

술에 얽힌 이야기는 무수하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가깝다는 것이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갑자기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져 주위사람을 놀래키는 일도 있다. 실로 「술의 힘」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엔 정신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하면, 흥분제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술을 적당히 마시고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 몸을 망가뜨린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튼 폭음폭식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문

알코올 의존증

「술의 유혹과 싸우는 매일」•「술」에는 강하다, 약하다는 개인차는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심할 경우에는 알코올 기운이 끊기면 몸이 떨린다고 한다.

개인적인 고민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 중에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족을 울리거나, 직장에서 신용을 잃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다. 어떤 주부의 증언에 의하면 「그건 장남이 태어나서 보육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마음이 맞는 4,5명의 주부와 항상 아파트 방에 모여 수다를 떨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맥주 뚜껑을 따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잔을 기울이며 떠는 수다는, 처음에는 점심 즈음에 끝나는 것이 저녁까지 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대로 술집에 가게 되었죠. 가사는 나 몰라라였고, 남편과 말다툼하는 매일. 남편도 차마 볼 수 없었는지 결혼 4년째 결국 이혼을...」라고 하는 비참한 말로에 (다다랐다고 한다). 이 외에도 상해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아이가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가족동반자살을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다.

**13 부권(가장의 권위)의 실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포인트

남녀평등이 대두된 지도 오래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민주사회로의 이행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부쩍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강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성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지, 원인은 다양하게 들 수 있겠지만 「부권실추」현상은 눈에 띄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잠자기 위해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라면 아버지 자격은 없을 것이다. 가장으로서 털썩 주저앉아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이에게는 좋은 상담상대가 되어, 가족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지금 다시 한 번 자각했으면 한다.

본문

남자의 있을 곳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실로 옅어졌다고 한다. 현재 사회구조에 따르면, 어찌됐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휴일은 가족과 함께」와 같은 미국적인 가정적인 면모를 원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는 일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사정을 안고, 부권실추, 가족단절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가족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일 것이다. 「아버지, 파이팅!」

**14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포인트

「인간인 것이 우선인가?」「남녀 성 구별이 우선인가?」 우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인류는 오랜 시간 머리를 싸매왔다.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인 것이 우선이고, 그 속성으로서 남녀의 성 구별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은 이렇게까지 학대 받아 왔을까? 남성인 것에 만족하는 남성은 많지만, 여성인 것에 만족하는 여성은 적을 것이다. 사고방식을 바꿔 「남자는 한 명의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한 명의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떤가!

본문

남녀차별

단 한번뿐인 인생이기에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활환경,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한다. 물론 수험전쟁의 벽은 있지만,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학생시절은 이상은 높지만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생활을 꾸리다」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생각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남녀라는 개념보다도 같은 인간이라는 개념 하에 자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경우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 틀림없지만, 남녀로서의 역할 분담은 크게 달라진다. 남과 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남과 여 어느 쪽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15 사회 속에서의 남녀의 벽을 생각하다**

포인트

「회사」라는 건 이익을 추구한 영리단체이므로,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계약관계에 의해 연결된 과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무리 친하게 대하더라도, 학생시절 친구처럼 깊은 관계는 그다지 지속되지 않는 듯 하다. 상하관계와 승진경쟁으로 적잖이 지친 분도 필시 계실 것이다. 그런 남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색한 인간관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여자사원이다. 여성에게 원하는 일이, 여성이 원하는 일과 너무 많이 다른 듯하다.

본문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부시게 된 현대이다만, 그렇다고 해도 빼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여성은 극히 일분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사회의 저변에 묻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사회」라는 것이 남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성과 개등하게 일하려고 해도 그것은 핸디캡이 너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 「여성은 회사에 다녀도 금방 결혼하고 그만두므로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남성의 본심일지도 모른다.

**16 공상의 영역을 넘어선 초과격표현**

포인트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본래 공상의 세계를 널리 펼치기 위해서 개척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렸을 때, 우주의 신비함에 눈이 휘둥그래졌던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반대로 어른들의 무책임한 상업주의의 산물로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의한 초과격한 폭력이나 섹스 신을 손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건전한 사회는 아이들의 건전한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문

만화 범람

일본은 만화대국이다. 출판물 중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만화책」으로, 3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로 경이적이다. 분명 공부에 지쳤을 때, 기분전환으로 만화책을 읽는 것은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데 좋을지도 모른다. 또, 스트레스만 많을 뿐 꿈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도피하여, 잠시나마 공상의 세계에 빠지는 수단으로서도 알맞은 것일지도 모른다. 만화의 세계는 실로 판타지이다. 하지만 곤란하게도 그것이 유토피아적인 판타지로 향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금기 시 되어 있는 일, 혹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테마가 스릴러(공포)•섹스(성)•폭력•살인 등을 묘사한 것이 너무나 많다. 말할 것도 없이, 만화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이며, 성장기에 이러한 것만 접하다가는 아이의 성격도 비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도 잔혹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유치하고 만화틱해 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만화대국 일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7 가족의식의 옅어짐과 개인주의 문제**

포인트

「노인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출생률의 저하와 핵가족화의 진행에 의하여 가족의식이 예전과 비교하여 약해져, 노인을 공경하기보다는 「장애물 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3세대 가족이 아이의 정신적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무심코 자신의 아이의 교육에 대해 한 소리 들으면 화가 난다. 「할머니는 응석을 받아줘서 곤란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엄마」야 말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가족의식은 중요하다.

본문

3세대가족

최근에는 며느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당연하게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며느리는 가정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것이다. 남녀평등의 의식고양과 핵가족화의 진행에 의해, 지금은 장남이라고 해도 양친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나가 살기도 한다. 그것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심각한 고부갈등)을 피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여겨지고 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야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훈을 자손에게 전한다」는 동양의 유교사상은 과연 옛 사고방식인 것일까? 이번에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18 매력 있는 당신이 되기 위한 자기개조**

포인트

버릇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기 쉽다. 자신에게는 그 행동이 멋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보는 상대에게 있어서는 거슬리는 것일 경우도 있다.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도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노력을 얼굴 표정과 행동, 말투에도 쏟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라고 하는 것이 그 개성이나 「가치관」을 갖는 방식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 상대적 판단도 하나의 정론일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듯하다. 매력을 갈고 닦자!

본문

업어도 7가지 버릇

자신은 모르는 법이다만, 사람들은 저마다 「버릇」이라는 것이 있다. 남성의 경우는 손가락으로 뚝뚝 소리를 낸다거나, 여성의 경우는 손가락을 입에 무는 등 신체적인 버릇이 있다. 이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로서 사람과 접하는 기회가 많고 인상이 중요한 사람은, 매일, 거울(전신이 다 보이는 것)을 보고 찬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말투이다. 말투는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이다. 어줍잖은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기껏 진행된 비즈니스 건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외국어 회화라는 것은 습관이 다르기 대문에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일본에는 「입은 재앙의 근원」「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말에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신입사원일수록 이러한 종류의 실패가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버릇(癖)」이란 글자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병의 하나이다. 그로므로 제3자의 입장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가능한 한 고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회생활의 에티켓이자,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9 사랑, 그 영원과 파멸**

포인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한번 뿐인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윤리관은 엉망진창이다. 프리 섹스나 호모의 출현이 젊은이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말기적 병상이라고 불리는 세기말 병 「에이즈」를 낳기에 이르렀다. 에이즈란 몸의 면역력이 망가져가는 병으로, 감염으로부터 발병까지 (잠복기간이)2~5년 이상이라고 하며, 증상이 오면 카리니 폐염, 카포지 육종이 나타나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다. 1992년 12월 현재, WHO에 보고된 에이즈 환자는 세계에서 61만명이며, HIV 환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본문

남녀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사랑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로미오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줄리엣이 될 수 있다. 「사랑은 맹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측정할 수 없는 힘(에너지)로 서로를 끌어당긴다. 인류도 남녀의 사랑의 힘에 의하여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도 사랑으로 연결된다. 그 정도로 사랑은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나 민족, 국가적이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며, 누구나 선악의 구별을 매기기 쉽다. 그리고 인류가 발전해온 것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남녀의 사랑은 어려운 것이다. 역사상의 영웅도 사랑의 실수로 무너져갔다. 프리섹스나 호모 등, 「성의 해방」에 대해서는 에이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근래, 스토커에 의한 살인사건 등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개인주의가 일으킨 변태적인 정신상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아리시마 타케오는 인생에 실망하여 「사랑은 가차없이 빼앗는 것이다(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하고 만다)」라는 말을 남기고 한 여성과 동반자살했다. 파멸로 향한 사랑이 아닌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굳이 말한다! 「사랑은 주고 잊으십시오.(=주기만 하고 바라지 말 것)」

**20 신혼생활은 봄의 분위기가 떠돈다**

포인트

누가 뭐래도 「신혼시절」만큼 즐거운 시기는 없을 것이다. 자연계의 예를 들자면 길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 봄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시기와도 같다. 그리고 신혼부부란 선선한 봄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며 어우러져 피는 「일곱 빛깔 꽃」에 꿀벌이 부드러운 날개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신호시절」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이다. 남성은 결혼할 때까지는 필사적으로 여성을 쫓지만, 결혼한 후에는 그다지 여성을 봐 주지 않는다고들 한다. 여성은 그 반대이다. 그 교차점이 「신혼시절」인 것일까.

본문

행복한 신혼을 위한 프롤로그

○역시 우리 결혼하고 싶어

패션, 여행, 식사와 화려한 생활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독신여성. 혼자 있는 것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녀들,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독신으로 있는 것에 심리적인 불안을 느낍니까?」

「네」 75%

○정해진 시간 안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 첫 데이트

상대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당신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성 30분 50.4% / 1시간 33.2%

남성 1시간 51.9% / 30분 30.1%

○프로포즈 내가 먼저 해도 될까?

어떤 상황이어도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다」 53.2%

「YES」 41.7%

「NO」 5.1%

**21 비과학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심령세계**

포인트

「과학적인가?」「비과학적인가?」라는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가. 최근 「심령세계」에 호기심을 보이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물질문명 덕에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반동으로, 반대로 「마음의 갈증」을 겪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후세계」를 믿겠지만, 무신론인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밎지 않는다.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답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다.

본문

비과학현상

아이 시절에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다. 애초부터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의 분석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설령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즉 자연형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동심으로 돌아가 「비과학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건

•91년 4월 2일 심야, 미야기 현의 가옥이 전소,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타 죽었는데, 그로부터 약 6시간 후, 화재를 모를 터인 부친이 야마나시 현에서 트럭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다.

•91년 6월 3일에 일어난 운젠•후겐다케의 화쇄류로 사망한 기자의 결혼반지가 10월, 현장에서 발견되어 동월 10일에 아내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날은 결혼기념일이었다.

**22 운명을 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포인트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신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아마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자신 있는 사람은 「필연」이라고 대답할 것이 틀림 없다. 「운명」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길흉의 힘의 흐름이다. 남녀의 구별이나 자신의 부모, 선조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숙명이지만, 「운명」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본문

운명

당신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의 「터미네이터2」를 본 적이 있는가. B급 영화니 뭐니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핵ㅍ고발로 멸망하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단호히 맞서는 어머니의 모습에는 누구나 감동할 것이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며 나이프로 책상에 새기는 장면은, 다시 한번 「운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 준다. 그건 그렇거 귀가 안 들리게 된 베토벤은 어떤 심경으로 그 「운명」을 작곡했을까. 그 곡은 산다는 것에 대한 강인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다. 문제는 일이 안 풀릴 때(역경)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강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운명이란 법칙에 묶여,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23 미혼모와 가정의 붕괴를 생각하다**

포인트

어째서 세계의 중심적 존재인 미국에서 「미혼모」가 증가하고, 이혼율도 50%를 넘는 「가정의 붕괴」가 진행되는 것일까? 신의 밑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간음」은 죄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나라에서 어째서 인종차별이 있고, 호모나 레즈비언이 증가하여 「에이즈」라는 불치병이 가속하여 퍼지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많이 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우먼리브(여성 해방)의 결과가 이것인가? 가정에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존재는 그 정도로 크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

미혼모

미국 사회의 전통적 가정관에 일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미국인구조사국에 의해 공표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1982년부터 10년간 「미혼모」의 비율이 60%이상 급증, 현재 미혼여성 4명 중 1명이 「미혼모」라는 상황이 되어, 한국에서는 이른바 「결손가정」이라 불리는 가정구조가, 미국에서는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화까지 도달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이 10년간 대학교육을 박은 백인 여성이 「미혼모」 전체 비율의 5.5%에서 13.3%로 2배 이상 늘었고, 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도 17.2%에서 32.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흑인여성의 미율은 82년에는 47%였지만, 92년에는 67%로 늘어, 3명 중 2명이 혼외출산을 한 계산이 된다 이러한 독신부모의 급증은 일본을 제외한 여러 서방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이 원인은 경제적으로 남녀간의 소득의 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에 의하여, 여성이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24 생명 공학의 발달로 대리모가 등장**

포인트

대리모는 출산을 맡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난자는 있지만 자궁적출 등 생리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이 곤란한 여성에게 의뢰를 받아, 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여 아기를 낳고, 부모에게 넘겨 사례를 받는다. 물론 대리모는 그 아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실제 부모와 계약을 맺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리모라고는 해도 잉태하고 있는 동안은 점점 애정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

「낳아준 부모」인가? 「길러준 부모」인가?

「낳은 정」과 「기른 정」 사이에서 일어난 2년 몇 개월에 걸친 법정투쟁 덕에, 이제는 할리우드 톱스타 정도로 유명한 존재가 된 아이의 이름은 「제시카 티보」. 제시카는 이 날부터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미시간 주의 티보 부부의 곁을 떠나, 자신을 낳아준 아이오와 주의 슈미트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91년 2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8세의 미혼모였던 카라 슈미트는 제시카의 양육권을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금새 마음이 바뀐 카라는 아기의 아버지인 크럭 운전수와 정식으로 결혼, 제시카를 되찾기 위한 법정소동을 시작했다. 재판은 장기화되었고, 언론도 「낳은 정」을 미는 편과 「기른 정」을 옹호하는 편으로 갈려, 격렬한 논쟁을 펼쳤다. 이 재판은 한편,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양부모」와 「대리모」에 관련된 법정투쟁에 연관하여, 하나의 선례가 될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이것과 같은 날에, 제시카의 사진 바로 옆에, 병원의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길러진 올해 14세의 킴베리 메이즈 양이 범정에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한 기사를 실어 대비시켰다. 제시카나 메이즈 양과 관련된 재판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미국가정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란?**

포인트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다. 살기 위해 매일 필사적일 수 밖에 없었던 옛날에 비해, 지금은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되었고, 평균수명도 크게 늘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사는 목적이었던 긴 인류의 역사에 일대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고, 마음이 고갈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부처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생명•돈」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유혹의 함정이 있다. 사는 의의를 생각해보자.

본문

사랑•생명•돈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한다고 비웃음을 살 질문이다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대답을 알 수가 없데 된다. 누군가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거기서 거기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즉 「사랑•돈•생명」 이 3박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세계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수리성이 있는 세계」라는 것이 해명되었다.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한 것인가?」, 또는 「신이 창조한 것인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인간도 자연의 법칙(원리원칙)에 따라, 사춘기(14~16세)가 되면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남녀 모두 「결혼」을 동경한다. 축복받으며 결혼하면, 「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부부의 사랑은 급속하게 식는다. 어째서인가? 그것은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장년기가 되면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고, 병을 달고 산다. 그렇게 되면 타산적이 되어, 있는 돈을 다 써도 좋으니 몸을 낫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이상적으로는 누구나 사랑>생명>돈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생명>돈>사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약한 것이다,

**26 남녀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인가?**

포인트

한 미녀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한다. 또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질투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말하는데, 이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감정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우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길러가는 것을 잘 생각해본 후에 남녀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본문

삼각관계

「사랑 고백」은 주위의 상황을 잘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짝사랑, 그 자체는 누구나 품는 감정의 한 움직임에 지나지 않지만, 충동적인 「사랑 고백」은 오히려 두 사람을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허나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들어왔을 때, 남자는 늑대가 되고 여자는 검은 고양이마냥 손톱을 뾰족하게 세운다. 세간의 이혼소동•바람•불륜 등을 일상다반사처럼 보고 듣다 보면,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이상처럼 느껴진다. 「사랑이 없는 결혼」「언제나 불안한 사랑」「질투 뿐인 연애」「삼각관계가 낳는 불행」 등등, 블랙홀처럼 큰 입을 벌린 난해한 「남녀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7 운명을 좌우하는 결혼의 상성**

포인트

결혼을 할 때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닐까」라는 것일 것이다. 연애감정은 일종의 열병과 같은 것이므로, 생활이 힘들어지면 식어버리기 쉽다.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한 후에 결혼해야 한다. 또, 부부는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미남미녀 커플이라고 해도, 또는 둘 다 천재인 커플이라고 해도 상성이 맞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것이 괴롭게 된다. 결혼은 일생에 한번 뿐인 찬스를 잡는 것이다.

본문

행복한 만남

유명한 남성 지휘자와 여성 성악가가 결혼했다.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라며 떠들썩했다만, 성악가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전업주부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것은 매일매일 지휘자가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라며 훈련을 시켰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지휘자가 죽고, 그녀는 사업가를 만나 재혼하였다. 그녀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남편은 격찬했다. 「당신, 다시 한 번 노래해보는 게 어때?」「하지만, 노래 그만 둔지 10년이다 지났어」「10년, 20년 지난 게 뭐 어떻다고 그래?」 그렇게 그녀는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그 후, 카네기 홀에서 발표회를 열었는데 발표회장 전원에게 기립박수갈채를 받는 대성공을 이루었다.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전 남편은 음악의 대가였다. 그래서 그는 결점만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의 남편은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봐 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결점을 없애기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 하지만 큰 결점을 고쳐도 또 다른 결점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인간은 결점을 찾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장점을 찾아 그것을 육성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말 잘하네! 대단해! 최고야!」 d와 같은 말을 들으면 자신이 생긴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도전해보려고 생각하는 법이다.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8 아이에게 친절한 사회란 무엇인가?**

포인트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분명 육체적으로는 먹을 것만 잘 주면 아이는 큰다. 하지만 예로부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세 살까지의 유아기의 교육이 얼마나 큰 요소를 차지하는지 모른다. 무심코 화내거나 울리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올바르게 자라야 할 아이의 정신을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다. 솔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

일본은 육아 천국 – 일본은 육아 안심, 친절한 사회.

일본사회는, 아이에게 매우 친절하다. 여러 곳에 아이가 놀 수 있는 작은 공원이 있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 모르는 사림이라도 「귀엽구나」라며 말을 걸어준다. 영국에서는 생각도 못 할 일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망치므로 사회에서는 미움 받는 존재이다. 레스토랑도 아이는 거절하고, 버스나 전철에서는 「16세 이하의 아이는 앉히지 말 것」이라고 써 있다. 유모차를 이끌고 장 보기도 어렵다, 「전철에서 유모차는 민폐. 그런 사람은 못 타게 해주세요」라는 투고가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일본에 와서 14년 째인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본에 조금 불만도 있었습니다. 남성중심의 사회라 여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영국인인데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거나.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밀리와 죠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디서든 기저귀나 아기용품을 구할 수 있고, 소아과 등도 근처에 많이 있어 편리하고 안심이 됩니다. 영국의 공원은 넓고 깨끗해서, 어른은 기분이 좋지만, 놀이도구 등은 없고 위험한 장소에도 울타리가 없거나 합니다. 일본은 공원은 좁지만 안전하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놀이도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일본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시미즈 실러 씨•41세 코토구 토미오카 거주 중인 영국인 주부. 일본 남성과 국제 결혼. 두 아이의 어머니)

**29 부부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시대**

포인트

남편의 바람과 아내의 불륜이 점점 더 증가하여,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희귀하게 생각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의 문제이므로, 타인이 옆에서 참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부부의 사랑이 가정의 안정에도, 아이들의 교육에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도 어느덧 비슷한 사고방식,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서로 자신의 요구만 강요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노력을 하는 부부라면, 그것은 분명 아이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본문

부부의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 옛날의 결혼과는 달리 현대의 결혼은 본인들의 의지가 존중되는 연애결혼이 주류가 되었다. 연애결혼은 이상적인 결혼일 수도 있지만, 본래 전혀 모르는 타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다. 「타오르기도 쉽지만 식기도 쉽다」라는 말도 있다. 연예인을 쫓는 것에 빠져있던 소녀가, 더 멋진 스타가 나타나면 재깍 그 쪽으로 가 버리고 만다. 자신의 취향대로 사람을 바꾸는 합리적인 서양문명의 여파를 받은 세대인 것이다. 「부부의 사랑은 절대적이다」라는 멋진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바람은 남자의 본성이다」「불륜은 지금 유행이야」라는 둥 부부가 서로 거짓말을 한다. 그건 본인들은 좋을지 몰라도, 아이가 불쌍할 따름이다.

**30 다음 세대를 짊어진 청소년의 윤리관**

포인트

중학생, 고등학생의 윤리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교내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이 문제가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의 돈을 목적으로 한 매춘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튼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철학으로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도덕성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유교정신이 생활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한국에서도 최근 쾌락적 문화의 여파를 받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

윤리의식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것을 흉내 내고 있다. 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과 아이는, 경제력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유에 있어서도, 차이를 분명히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어른의 세계가 잘 모르는데다, 아이는 아직 몰라도 된다는 말로 무언가 정보를 차단당하던 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학교에 다니고, 사회의 규범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엔 정보가 범람하여 TV를 중심으로 한 언론은 세간의 나쁜 면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비판하고 있으며, 스캔들이나 불륜, 부정 등의 단어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다. ‘아, 어른이란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쁜 짓만 해대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라는 기분으로 자유니 권리니 외치며, 아이들이 반란을 시작했다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언론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은 반성하려 하지 않는 어른들의 일방적인 교활한 시각에 반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문제는 심각하며, 어른의 윤리의식을 묻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현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편리한 대행 비즈니스**

포인트

예전에는 풍족한 가정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여, 대저택의 청소나 식사의 준비를 맡겼었다. 그 일은 거주형으로, 집에 돌아가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자유로운 생활은 있을 수가 없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생활이 중요시되는 현대에는 인기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가정부를 고용할 돈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이것저것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고령자가 늘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잠깐 대신 장보러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많다. 그런 시대에 주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본문

바쁜 시대를 노린 비즈니스

세상이 참 편해졌다. 편의점에 가면, 콘서트 티켓도 살 수 있고 택배도 찾을 수 있다, 심야영업을 하는 디스카운트 샵도 가전제품을 사러 오는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서비스는 틀림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일하는 주부도 아이의 교육이나 가사에 쫓겨 쉴 큼도 없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파트(타임)로 무엇이든 해주는 심부름 센터이다. 심부름 센터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원을 수십 명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가 온 일시에 시간이 되는 사람을 파견한다. 그 일을 말하자면 화장실 수리, 대청소, 개 산책, 노인 대신 먼저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등, 보통 꺼려하는 일이지만 불황, 실업자의 증가, 취직난 등의 영향으로, 일단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어떤 슈퍼에서는 노인 대신에 장을 봐 주고 배달을 해 준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오이는 몇 개인지, 얼마 짜리와 얼마 짜리가 있는지, 그럼 싼 것으로 하시겠어요?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장을 봐 주므로 많이 사 버리는 등의 낭비도 없고, 손님 측도 어느 정도는 장 보는 기분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다양한 방면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

**32 기업가를 육성하자**

포인트

벤처 비즈니스나 SOHO 등,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에서 불안에 떨며 일하는 것보다, 독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의의를 느끼며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 교육용 교재나 학교도 등장했다. 일본은 아직 뒤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어릴 때부터 뭐든지 계산으로 재가며 판단하는 타산적인 사람이 되는 건 곤란하다. 하지만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기대할만한 것 같다. 당신이 유치원생 때 이것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본문

비즈니스 체험

비즈니스 체험 캠프라는 것이 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모여 팀을 만들어 사장, 판매 매니저, 선전 매니저 등의 역할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캠프 내에 만들어진 가상은행에 가서 자금 차입 상담을 하고, 계획에 무리라고 판단 될 경우 사업계획서는 다시 써야 한다. 간신히 자금을 손에 넣어 준비를 하고 드디어 판매. 이번에는 어떤 팀은 유원지에서 독자적인 디자인의 그림엽서를 판매. 컴퓨터를 지참하여 그 자리에서 프린트하였지만 매상이 영 좋지 않다. 난처해진 A군은 갑자기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유원지의 놀이기구에 탄 사람을 촬영. 그 사진을 그 자리에서 그림엽서로 인쇄하여 가지고 가 봤다니, (그 사람이) 사 주었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A군은 놀이기구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 어찌어찌 장사다워졌다. 긴급시의 임기응변도 비즈니스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실행에 옮겨, 성공한 것은 돈 이상으로 A군에게 있어 귀중한 체험이 되었을 것이다.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창조성이 있을 것 •팀워크를 지킬 것

•리더십이 있을 것 •책임감이 있을 것

•자신과 동료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할 것 •자기자신과 동료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

•리스크를 판단하여 계획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힘이 있을 것

**33 회사밖에 모르는 회사인간이 위험하다**

포인트

일본인은 일을 많이 한다. 해외로부터 「일본인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일벌」이라는 등 일하는 것이 마치 나쁜 것 마냥 비판 받고 있다. 그래도 요즘은 「서양 수준의 노동시간을」이라는 취지로, 주5일제를 하는 회사도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일본인은 여유를 즐기는 것이 서툴러,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가 있다. 휴일도 반납하고 회사에 나가는 사람도 많다. 일하는 편이 가족과 같이 있는 것보다 재미있다는 것이다. 몸을 혹사하며 무리하는 것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충실감을 준다. 이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다.

본문

과로사

세상의 격변과 막상막하로 직장의 변화 역시 심하다. 새로운 기기가 속속 공개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기에 바쁘다. 교통편은 좋아져도 통근지옥은 말도 못한다. 그것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인간관계에 미묘한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일하는 측은 피곤에 절어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그러한 갓이 뇌출혈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지고, 과로사로 인한 소송 늘어가고 있다. 「비뚤어진 시대」이다. 대기업 상사의 과장의 죽음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 것도, 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맹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노예 노동의 시대가 아니다. 당연히 건강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의 양이나 일하는 방식과 그 평가를 둘러싸고,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잔업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서비스 잔업」이나 집에 일을 가지고 가는 「보자기 잔업」이 당연시 되어 있다. 바빠서 일이 남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착실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하는 측도 일과 사생활을 구별하여 자기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해야 한다. 착실히 일하고, (일과 사생활의)구분을 딱 짓고 쉬는 것. 비참한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째서 일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년이 다 되어 두통 등이 찾아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사밖에 모르는 「회사인간」이 걸리기 쉽다고 한다. 그것은 다른 일에 가치관을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의 방식을 장려하고, 나이가 먹으면 민폐 취급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모두가 칭찬하는 「일본적 경영」의 실태를 알면, 그러한 조직에 젊은이나 여성들은 분명 고개를 돌릴 것이다.

**34 청결함은 인생 성공의 열쇠**

포인트

나는 방 안에 물건이 잔뜩 있는 편이 마음이 안정된다. 나는 깔끔한 방이 좋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건 다양하지만, 더러운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더러운 환경에서는 병에 걸리기도 쉽다. 같은 양말을 이틀이나 신으면 찝찝하고, 일주일이나 목욕을 안 하면 여기저기 가려워지기도 한다. 신경과민인 사람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지 않을까? 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청결하다는 것은 쾌적한 생활에 불가결한 것이며, 인생의 성공과도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본문

화장실 청소의 효과

요즘 학교 화장실을 새롭게 보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변을 보고 싶어하지 않아 몸을 상하게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등의 데이터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더럽게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러워질 뿐이다. 하지만 깨끗하게 보수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런 이유로 화장실 청소는 청소업자에게 의뢰하던 대도시의 학교도, 전체나 부분적, 저마다 차이는 있어도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켜 깨끗하게 사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물을 소중히 하는 것을 교육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었다.

한편, 자기 회사 화장실을 직접 청소하는, 그것도 변기 속까지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이미 10년 이상에 걸쳐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사원도 아니고, 관리인도 아닌 사장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신적 단련과 같은 목적으로 혼자서 시작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청소 습관이 사내 전체로 퍼져졌고, 그것이 일적인 면에서도 발휘되어 팀워크도 좋아지고, 청소 연구가 작업 개선으로도 이어는 등 좋은 영향 뿐이었다. 그 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낼 정도의 기세로 급성장하였고,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전국에서 경영자가 청소 연수를 올 정도이다. 화장실 청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5 종신고용에서 능력주의 시대로**

포인트

오랜 기간,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제라는 경영체제를 유지, 사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고, 회사는 사원의 생활을 보호하는 서양에는 없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기업경영의 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요즘에는 서양에서도 주목 박고 있다. 그런데 버블 경제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 종신고용으로는 회사의 경영이 성립하지 않게 되어,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왔던 40, 50대 사원도 이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새삼스럽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학교에 다니는 아버지 세대도 늘고 있다. 나이 먹고 하는 공부는 젊었을 때랑 달라 쉽지가 않다. 참 힘든 세상이다.

본문

사회인 대상 강과

버블 경제의 붕괴, 인원삭감, 종신고용제 붕괴, 연봉제 도입과 일본의 샐러리맨에게 있어 능력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 학비를 나라가 보조해주는 제도도 생겨, 경제적인 부담은 다소 적어졌지만, 매우 급한 일이 들어오면 수업에 지각 또는 결석할 수 밖에 없다. 수업에 참가해도 일이 신경쓰이는 날도 있다. 건성건성 하다가는 이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이 날아간다. 집에 돌아가면 예습, 복습도 필요하고 주말이라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을 수도 없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라는 것은 수험공부와 똑같아 필사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상 달성하기가 어렵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행정서사 •의료사무 •보육사

•사회보험노무사 •공인중개사 •간호복지사

•중소기업진단사 •기상예보사 •컬러 코디네이터

**36 육아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포인트

남녀평등이란 누구나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그다지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부가 되면 서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다 보니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 육아의 관점에서 있어서는, 처한 입장도 다르고, 출산을 하는 것은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지켜볼 뿐이니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의 아버지라는 경향에서 탈피하기 위에서, 남성도 무엇인가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에게 소외되어 쓸쓸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문제이며, 가족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예전에는 100%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었다면, (그것이)지금 크게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문

육아와 아버지

불경기로 부부의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시대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는 요즘, 일에 대한 책임도 늘고 육아가 점점 더 부담이 되는 현상황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또 예전과는 다른 본질적인 청소년의 비행, 폭력, 살인사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일 중심에 가정을 희생해 온 아버지들도,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하며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육아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서투른 손길로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주고 목욕도 시키지만, 아내한테 손재주가 없다거나 빨리 안 하면 감기 든다는 등 불평을 듣는다. 첫 출산으로 육아 경험이 없는 부부의 경우, 둘 다 허둥지둥 아이를 보게 된다만, 태어나서 계속 같이 생활한 엄마에게 아빠는 시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고, 아이의 심리상태나 건강상태의 미묘한 변화 등은 간단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핸디캡을 안고 있는 아버지들에게도 용서 없이 찾아온다. 육아에 대해 생각해 보자.

**37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다**

포인트

생명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은 여러 병과 부상으로부터 인간을 구해왔으며, 지금은 심장 대신 페이스메이커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뇌의 기능이 멈춘 경우,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를 뇌사라고 하며, 몸은 생명유지장치로 활동을 계속하지만, 뇌는 아무런 명령도 내릴 수 없다. 물론 의식도 없는 상태이다. 생명의 존엄성이란 관점에서도 이것은 극히 복잡한 문제이다.

본문

안락사는 옳은가 그른가

97년 봄, 교토의 병원에서 안락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병원 원장이 암 말기환자에게 근육이완제라는 주사를 놓아 죽게 한 것으로, 원장은 「본인에게 부탁을 받아 안락사 시켰다」고 말했지만, 경찰 측은 「살인이다」라는 이유로 기소 당해, 결국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병환자를 말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만, 환자 자신이나 가족의 동의 하에 생명유지장치를 거두는 「소극적 안락사」와 약물 등을 사용한 「적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교토 병원의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가 되겠지요.

일본인의 사망 원인 순위

1위 악성 신생암 : 인구 10만명 대비 226.6명

2위 심질환 : 인구 10만명 대비 114.2명

3위 뇌혈관환자 : 인구 10만명 대비 110.0명

4위 폐렴 : 인구 10만명 대비 63.8명

**38 인구문제와 클론**

포인트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둥, 아이는 필요 없다는 둥, 물론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자연계의 법칙에 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아이를 원하는데도 가지지 못하는 가정에는 좋은 소식인데 「생명의 탄생」이 인공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찬비양론의 의견이 있으며, 저항감도 아직 강하다. 아이를 원하는 바람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아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인공수정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문

소자화(저출산)=무자화(무출산) 그리고 복제인간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1.43입니다. 합계 특수 출생률이란 두 사람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로, 이것이 2.1을 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인구는 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고 그 아이에게 아낌없이 애정(돈)을 쏟는 것, 이것이 현대의 젊은 부모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미혼 남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42.6%였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무자화 현상의 시작을 보는 듯한 대답이네요. 「인구 감소는 국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므로 조금 걱정도 됩니다. 한편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식인은 「복제인간으로 인구의 감소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만, 장래 만약 자신의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면…? 그런 일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39 광고의 공로와 죄**

포인트

일본에서는 매일 많은 전단지가 신문 사이에 넣어져 배달된다.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보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컬러 전단지가 대부분이다. 슈퍼의 폭탄세일 전단지도 있어, 꼼꼼한 주부는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간다. 연구에 열심인 주부는 매일 전단지를 보관해두고, 어떤 슈퍼는 어느 것이 싼지, 언제 어떤 세일을 하는지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쇼핑 스케줄을 짠다고 한다. 잘 쓰면 전단지도 편리한 것이다. 하지만 광고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 곤란한 것도 많을 것이다.

본문

광고의 공로와 죄

「광고를 보면 그 나라의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매상의 증진이므로, 각 기업이 자사의 신제품 등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이런 제품 광고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품의 특징•장점 등을 강조하는 「이론적 접근」. 또 하나는 왠지 모르게 공감 가게 만드는 「정서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고래가 하늘을 나는 맥주 광고가 있습니다만, 맥주의 품질이나 맛과 고래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것이 정서적 광고인 것이지요. 일본에는 이러한 광고가 많은데,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는 자사 제품의

뛰어난 점, 또는 구매자에게 있어 득이 될만한 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론적인 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40 21세기**

포인트

어릴 때 본 TV 프로그램이 최근 재방송 되는 것을 우연히 보고 놀랐다. 주인공이 시계를 휴대전화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때는 먼 미래의 일이기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실현된 것을 생각하면 2001년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지금 우리의 눈 앞에 있다는 것이 된다. 1969년에 「2001년의 일본」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도 컴퓨터나 디지털 방송, 모바일 등이 생활에 침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래는 정말 눈 앞에 있는 것이다.

본문

21세기에 없어질 것

21세기는 2000년부터인지, 2001년부터인지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세간에서는 2000년부터라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스피드 시대라고 불린 지도 꽤 되었는데, 요즘 세상의 변화는 실로 빨라서, “10년이면 한 옛날”라는 말은 지금은 거의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그 이상으로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는 의미) 앞으로 올 100년간, 즉 21세기 안에 우리 생활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뀔 것이며, 그에 따라 현재 쓰이고 있는 물건 중에서 쓰이지 않게 될 것, 없어질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우리도 21세기에 대하여 다양하게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

비즈니스맨 대상 앙케이트

•21세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21세기에 없어질 것은?

1. 지구 환경 문제 1. 타임 카드(출퇴근 기록 카드)

2. 저출산 고령 사회 2. 가솔린 자동차

3. 일본 경제의 부흥 3. 타자기

4. 정치개혁 4. 팩스

5. 자원 고갈 5. 고정식 전화

6. 식량 문제 6. 지폐•동전

7. 의료 문제 7. 전자계산기

8. 핵 폐지 8. 넥타이

9. 민족분쟁 9. 재떨이

10, 과학기술의 부흥

**41 느긋한 성격**

이런 분실물(도 있어)!

내가 초등학생 때, 근처에 라면집이 오픈했다. 개점 당일 한정으로 라면이 10엔이라는 대단한 라면집이었다. 라면광인 나는 당연히 그 곳으로 향했다, 집을 나설 때, 문득 무언가 잊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손에 지갑은 있다.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났다. 생각해내는 것을 그만두고, 라면집에서 10엔 라면을 배불리 먹었다. 계산 할 때가 되서야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내 지갑에는 1엔 짜리 동전이 6개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옆에서 먹고 있던 착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었고, 4엔을 대신 내 주었다.

내 안에 작은 생명이 깃들었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한 것은 딸이었다. 병원 검진에도 반드시 동행하고, 초음파 검사로 모니터에 비추어진 "작은 여동생」을 만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딸에게 마나미라는 이름을 받은 배 안의 아이는, 나날이 크게 자랐다. 하지만, 태어난 것은 튼튼한 남자 아이였다. 딸은 「여자 아이를 낳아달라고 빌었는데"라고 말하고는 한동안 그 이름을 부르려고도 하지 않았다. 딸이 착한 누나가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신기해하는 내 귓가에 딸이 말했다. 「나, 엄마 배 안에 고추를 두고 있어. 그걸 유우 군이 가지고 나온 거야」. 그리고 작은 남동생은 딸의 제일가는 보물로 승격했다.

쇼와 28년 경, 근처 극장에서 미인 마술사의 쇼가 있어, 구경하러 나갔다. 그녀가 손에 쥔 실크 모자에서 비둘기나 닭, 만국기 등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 부드러운 손놀림에 어안이 벙벙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얇은 줄을 꺼내 「누군가 제 팔을 묶어 주세요」라고 말했고, 앞줄에 앉아 있던 내가 스테이지에 불려 나가게 되었다. 양팔을 꽉 묶자, 원 투 쓰리라고 그녀가 카운트를 했다. 그러자 팔이 스윽 줄에서 빠져 나왔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스테이지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잊고 간 물건이요"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뭘까 하고 돌아보자 악수를 해 주었다. 쑥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한 장면이었다.

**42 열광 스포츠 관전**

일본인은 스포츠 마니아

재단법인여가개발센터가 일본의 스포츠를 접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결과를 「스포츠 라이프 백서」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스포츠를 「한다」「본다(관전)」「본다(시청)」「읽는다」「지탱한다」「말한다」의 6항목으로 분류하여 지표화. 스포츠가 지금은 우리의 생활에 널리 침투하여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조사는 96년 8월부터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80.8%의 회신을 받았다.

한다 「스포츠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5.7% (남 82.5% 여 69.1%)로 상승했다. 경기별로는 「볼링」이 남녀 모두 1위였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도 10대부터 40대까지 전부 1위를 차지하는 인기를 보였다. 싼 요금과 여럿이서 즐길 수 있어서 인기인 것 같다. 남녀차가 현저했던 것으로는 「코스 골프」. 남자는 2위였지만 여자는 「연습장 골프」가 9위에 들어간 것이 전부였다.

본다(관전) 축구를 보러 프랑스까지 가게 된 일본인이지만 「자주 관전」하는 것은 일상과 가까운 스포츠인 「운동회」가 15.9%로 1위. 뒤를 이어 「프로야구」가 15.6%, 「J리그」가 5%의 순위였다,

본다(시청) 스포츠를 텔레비전 등으로 즐기는 사람은 남자는 95.2%, 여자는 86.9%로 높은 숫자가 나왔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고교야구, 마라톤•릴레이 종목이 1.9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은 1.2시간이었다.

읽는다 신문의 스포츠란, 스포츠지 등을 읽는 시간은 1일 평균 24분이었다. 남자는 스포츠 팬이 많아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원 중 5할이 넘는 사람이 「일고 있다」고 대답했다.

말한다 남자의 80.6%, 여자의 72.1%가 「스포츠를 화제로 삼고 있다」. 나가노 올림픽, 월드컵이 있었단 해의 데이터가 정리되면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한 번 말할 때의 대화시간은 17.5분.

**43 궁극의 힐링을 찾아서**

향기로 취하는 안식

꿈을 꾸고 있었다. 녹색으로 뒤덮인 들판, 맑고 푸르른 하늘. 뒹굴며 신선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쉬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던 참에 넘어져서 눈을 떴다. 집 침대였다. 세면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아침이 시작되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다르다. 오랜만에 숙면을 하여 기분이 상쾌했다. 꿈 때문인가. 그런데, 어째서 꿈을 꾼 걸까….

분쿄구 코이시카와에서 아로마테라피 가게 「힐링(치유의)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C 씨가 허브의 신비함을 느낀 것은 10년 전의 그런 아침이었다. 독신일 때, C 씨는 의원 비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담배 연기였다. 연기로부터 도망가고 싶어도, 무턱대고 자리를 떠날 수도 없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면, 냄새가 옷에 배어있었다. 바로 머리를 감았다.

어느 날,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열도 났다. 두통에 괴로워하며, 여러 병원에 다녀도 낫지가 않았다. 언제부턴가 진통제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었다. 허브 차를 마시고 꿈을 꾼 건 그런 시기였다. 허브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향기」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책을 사들였고, 도내에서 열리는 스터디에도 참가해 보았다. 「이런 걸로 정말로 낫는 걸까」. 반신반의로 시작한 공부였다만, 허브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했다. 기분을 누그러뜨리게 해 주고,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는 등 종류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 언젠부턴가 C 씨는 주부의 취미를 넘어설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 비자금을 가지고 허브 가게를 차렸다.

C 씨가 추천하는 허브는, 활력이 필요한 아침은 강장 작용이 있는 「로즈마리」. 조용히 잠들고 싶은 밤은 진정 작용이 있는 「라벤더」. 건조시킨 허브를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허브 오일을 몇 방울 목덜미에 바르는 방법도 있다. 살균 작용이 있는 「티 트리」라고 하는 허브 오일은 물로 희석하여 입을 헹구면 기침이나 목의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엄마가 외출하기 전의 아이들의 옷에 허브 오일을 한 방울 스며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기분도 달라져요」라고….

**44 어디에 숨어있을 지 모르는 공포**

내가 공포를 느낄 때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혼자서 자고 있으면 캄캄함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퍼진다. 똑딱똑딱. 듣고 있다 보면 「저 시계는 살아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 당연하지」. (고 말한다) 지난 밤의 일이 마치 거짓처럼 생각되곤 하는, 바로 끝나버리는 별 볼일 없는 공포였습니다.

호러 영화를 본 후,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창문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하면 깜짝 놀라며 밖을 본다. 아무도 없다. 매우 무섭다. 아, 또 창문이…. 범인은 바람이었다. 하지만 비디오로 「링」을 보았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 다 보고 나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환기구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꺼림칙하다. 심장 고동은 점점 높아지고, 몸도 제대로 씻지 않았음에도 욕실에서 나오고 말았다.

•세월의 「무거움」

수년 전,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모 만화가의 작품전을 보러 갔다. 원화 등의 전시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돌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소녀가 이쪽을 보고 미소 짓고 있는 그림에 눈길이 멈췄다. 그리움을 느꼈지만, 캐릭터명을 모르겠다. 자세히 보니… 정말 좋아했던 작품의 주인공!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기뻤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 때, 이 주인공은 내가 동경하는 언니였을 터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훨씬 어린 소녀가 되어있었다. 그렇습니다, 만화의 주인공은 나이를 먹지 않지만, 독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다이어트

남편은 매일 같이 「다이어트 해」라고 한다. 「살 빠지면 분명 귀여울 거야」(지금은 안 귀엽다는 건가). 「너한테 다시 반할 걸」(지금은 반해 있지 않다는 건가). 「결혼 사기꾼」(의미불명). 「체중 불만족」(이쯤 되면 일본어도 아니다). 아들은 나를 격려하려고는 한다만 「엄마. 분하면 다이어트 해서 아빠한테 한 방 먹여」라며 다이어트 시키려는 본심이 너무 잘 보인다. 「좋아, 올해 여름까지 10키로 좀 안 되게(이 「좀 안 되게」라는 부분에서 이미 약한 소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 빼야지」라고 허풍을 떤 것까지는 좋았다만, 남편은 「살 못 빼면 이혼이야」라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혼에 공포를 느껴 신경질적으로 변하면 살을 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45 사적인 공간을 부여하다**

아이 방의 재발견

일본에는 대부분의 집에 아이 방이 있다. 열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는 독립된 개별방도 드물지 않은데, 일본의 아이 방은 세계적으로 보면 꽤 특이한 존재이다. 2차 대전 후, 급속하게 보급된 아이 방이 부모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닫고, 때로는 비행의 온상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새로 지은 집에서 사는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 방이 일반화되었고 그에 따라,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부모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아이들의 비행에 주거 환경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저택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이 방이, 일반 샐러리맨 가정 등에도 퍼지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후.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부터는 수험전쟁에 필요하다는 사정도 있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주택 메이커인 미사와 홈이 1998년, 아이가 있는 339세대에 앙케트를 한 결과 95%가 「아이 방이 있다」고 대답했다.

「2차 대전 후, 많은 일본인은 TV드라마에 나오는 미국의 넓은 집을 꿈꿔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이 방(미국의 아이 방은 주로 밤에 자러 가기 위한 침실)이 반드시 있었고, 일본에서는 수험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공부방이라는 고독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침착할 수 있도록 문에 열쇠를 달고, 기분전환 용으로 오디오 기기부터 TV, 나아가서는 샤워시설도 마련된 호텔 같은 방도 있다. 한정된 토지에 짓는 것이므로, 부모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현관에서 바로 아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도 널리 퍼졌다. 이래서야 부모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는 것도 당연지사이다.

가정 내 폭력이나 등교 거부를 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어 고민하고 있는 부모 60명에게 앙케트를 했다. 그 중 70%의 집이, 부모가 있는 장소를 통하지 않고 아이 방에 직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언제든 자기 방으로 도피할 수도 있고, TV게임 등도 혼자서 맘껏 즐길 수 있다. 번거로운 인간관계도 없다. 그러한 공간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등교거부나 비행의 증가 등과 연관되어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최근의 소년범죄를 보아도, 아이 방의 밀실화로 부모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눈에 띄는 것이 염려된다.

일찍이 전통적인 일본 가옥에서는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그것은 장지문이나 발 등 융통성 있는 칸막이 시설로, 전체가 하나의 큰 방과 같은 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가족은 언제나 얼굴을 맞대고, 좋은 의미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타인에 대한 섬세한 마음 씀씀이나 사회의 매너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46 변화, 발전과 쇠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기 있는 직업

미국에는 무려 23559종의 직업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침대의 부드러움을 조사하기 위해, 1일 8시간 씩 맨발로 매트 위를 밟는 「매트리스 워커」나 거리나 지하철의 광고 모델로 등장한 미인들의 얼굴에 장난으로 그려진 수염을 지우는 「수염 청소부」라는 직업도 있다, 점점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면서 직업도 그만큼 세분화된 것이다.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주기도 빨라졌다.

우리나라(일본)도 92년과 비교하여, 버스 안내원이나 타이프라이터 등 10가지 직업이 사라지고, 접대원, 애완동물 미용사 등 새로운 직업이 17가지나 탄생했다, 이처럼 직업의 붐의 주기가 빨라진 것은, 고작 100년도 안 된 일이다. 20세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직업의 종류가 많지 않았다.

그건 그렇다 쳐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인기 있는 직업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스 시대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인기가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인생과 정치에 대해 강연하고, 민중은 가르치고 인도했다. 포에니 전쟁(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으로 지독히도 괴로움을 겪던 로마에서는 군인이 동경이 직업이었다. 큰 콜로세움과 대형 기념비 등을 만드는 건축가와, 매일매일 로마인의 전쟁영웅담과 인생의 애환을 노래하는 연극배우도 인기가 있었다. 9세기 압바스 왕조 시대의 아라비아인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며 새로운 풍물이나 문화를 접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하는 나무꾼, 나무로 배를 건조하는 목수,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청소년들의 희망의 직업이었다. 인도에서는 의사가 찬양 받는 직업이었는데 이것은 십자군 전쟁에서 넘칠 정도로 많은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제국이 맹위를 떨치던 13세기에는 천문학자가 유망한 직업이었다. 상인들이 광대한 대륙을 횡단하려면, 날씨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한편, 도자기 문화가 융성했던 명나라 시대는 도공이 넘버원이었다. 이 때 식민지 확대에 혈안이 된 스페인에서는 야수와 싸운다거나 풍토병과 열심히 싸워나가며 개척지의 지도를 그리는 지도 제작자가 인기가 있었다. 17세기 청나라 시대는 황실도서관이 매우 커 사서가 유망한 직업이었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는 초콜렛이 인기라, 제과사가 인기였다.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직업이 탄생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일본)에는 1237가지의 직종이 있고, 15000여 직업이 있다. 앞으로는 여가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연회 전문가, 여행 기획가가 인기를 끌 것이고 이미지 컨설턴트와 일러스트 레이터 등, 예술성을 중시하는 직업이 전망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 컴퓨터 게임의 시나리오 작가, 직원 응원 전문가, 공인 알코올중독치료사 등의 직업도 등장할 것이다.

**47 스피드 시대의 샐러리맨**

젊음을 걸고 아이디어로 승부

서울 동대문의 의류상점가에 있는 여성복 전문점 중에는 2평 남짓한 공간으로 넓이는 근처 가게와 비슷하지만, 매상은 잘 알려진 중소기업도 무색할 정도의 점포가 있다. 대구, 광주 등 전국에 12개의 체인점이 있고, 인천, 목동에도 직영점이 있다. 1일 평균 400벌 정도의 옷이 만들어지고, 전국으로 뿌려져, 하루 매상이 천만 원을 넘길 때도 있다고 한다.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옷을 만드는 게 너무 좋다」며 의류 디자이너로 변신한 그 가게의 주인의 나이는 31세. 그녀는 1주일에 2,3번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에는 아침 8시부터 옷감을 고르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삶의 보람으로, 오늘도 꼭두새벽부터 동대문 일대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화제는 누가 뭐래도「증권」과 「벤처 비즈니스」일 것이다. 어디서든 몇 명 모이면 「누가 증권 투자로 현금을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금세 화제가 고정되어 버린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증권 계」라는 것도 생겼다고 한다. KOSDAK이라고 하는 장외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연초에 비해 수십, 수백 배 이상 급등한 기업이 계속 나와, 20~30대의 젊은이가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반도체 등의 첨단전자정보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던 젊은이들은 어중이떠중이 모두 다 맡아온 연구를 내팽개치고, 자진해서 벤처기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저물어가는 산업이라 불리던 섬유업이 갑자기 벤처 산업으로 변신한 것이 이 동대문 상점가이다. 지금, 동대문에는 성공을 꿈꾸는 디자이너, 사업가의 수만 해도 수만 명 이상 모여 있다. 본래, 벤처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좌우된다. 벤처라는 것도 「젊음을 걸고 빈손에 아이디어(또는 기술, 감각, 타인과 다른 부분)로 승부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꼭 업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작은 구두 가게나 빵집이라도, 사장의 마인드와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벤처가 될 수도 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젊은 피가 들끓는 자들이여, 21세기에는 벤처 기업가로 눈을 돌려보자.

**48 거짓말이어도 좋으니 자랑해 보자**

나의 자랑

•연인 기분의 부모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아빠 자랑을 한다. 「결혼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을 잡아라. 하지만 흔히 있지는 않겠지만」이라고. 나도 20살이 되었기에, 아빠랑 둘이 술을 마시러 가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친구랑 가면 되지. 아빠와 둘이 가다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라며 화를 낸다. 딸에게 라이벌 의식을 불태워서 어쩌자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말해 부럽다. 엄마에게 무른 아빠. 딸들에게 배려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고 앞을 걷는 두 사람이 나의 자랑. 언제까지나 연인 사이로 있을 수 있는 부부는 나의 동경의 대상. 엄마에게 지지 않고 아빠처럼 좋은 사람을 찾아내야지!

•완전무결한 절친

역시 제 절친입니다. 머리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성격도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입니다. 제 절친인 게 아까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친과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건 언제나 나… 그런 나에게 절친은 언제나 다정히 대해 줍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너무 귀여워서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것입니다. 들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이 목소리 덕에 판매 전화에 붙잡힌 적도 없습니다.(「어머니 계시니?」 등, 나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말하고 싶어질 만한 대접을 받습니다.)고민이라면, 2살 아들을 혼내도 제가 화내고 있다는 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혼을 내보아도 이 목소리 탓에 허사가 됩니다. 뭔가 좋은 혼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욕을 하지 않는다

남 욕을 하지 않는 가족인 것. 아빠, 엄마, 고등학교 1학년 남동생, 저까지 모두 남 욕을 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장점일 수도. 조금 각도를 바꿔보면 부럽게 여기는 일도 있을 거야」라던가 「누구든 좋은 점은 있어」라는 말을 버릇처럼 말하던 엄마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되어, 싫은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9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복고**

문명의 이기

원고를 관서에서 도쿄로 보낼 경우, 팩스가 없었던 시절 가장 빠른 방법은 신칸센으로 보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신오사카 역 부근에서 차장이 누군가에게 맡기면, 편집자가 도쿄역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집에 팩스가 들어온 건 1988년, 그로부터 몇 년 후 워드프로세서도 샀다. 예전부터 나는 아무리 해도 원고지에 글을 쓰는 것이 서툴렀다. 수정사항을 기록한 빨간 글씨와 화살표 등으로 원고지 칸 속 뿐만 아니라 칸 밖도 점점 더러워져 간다. 나의 서툰 글씨도 맘에 들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보다 그런 비주얼적인 면이 신경 쓰여, 원고지의 칸을 채울 기분이 나지 않게 되곤 했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서 히라가나 변환으로 처음 도전했을 때,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한동안 방치하고 있던 찰나, 지인으로부터 「속은 셈 치고 로마자 변환으로 서 봐」라는 충고를 듣고, 마지못해 해 보았더니 (새로운)세계가 간단하게 열려갔다. 지금도 이 문장을 워드프로세서의 로마자 변환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삭제」「이동」「삽입」 등의 키를 구사하여 완성하여, 칸 밖에 쓰여진 글자도 없는 깨끗한 원고를 통일성 있는 명조체로 쳐낸다. 다음은 팩스로 오사카에서 도쿄로 송신하면 완료. 낡은 표현이긴 하지만, 역시 문명의 이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 두 기계에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가 보급됨에 따라 「글씨를 쓰지 않게 되어서 한자를 까먹어서 큰일이다」라고 하는 일상의 화제를,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양인의 손글씨가 지독하리만치 서툴다는 것을 떠올린다. 알파벳은 고작 25자. 타자기를 발명하는 데 있어 실로 유리한 문자 시스템이다. 타자기는 급속히 보급되었고, 그와 함께 허풍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서양인의 「손글씨」 망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우리집 팩스에 들어오는 서양인의 「손글씨」를 만족스럽게 판독한 역사가 없다. 워드프로세서과 함께, 일본사회도 서양만큼이나 「한자」를 잃고, 또 「손글씨」를 잃어가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래된 좋은 문화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 왠지 비관적 색조를 띠게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의외로 긍정적인 기분이다. 요즘 나는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 없었던 「자필로 쓰는 글」을 시작했다. 원고지를 사용하던 때에는 글의 내용과 손글씨에 의한 원고의 비주얼의 아름다움, 양쪽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기에, 혼란스러운 기분이었다.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 덕에, 지금은 글의 내용과 손글씨의 비주얼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워드프로세서로 사고를 잘 정리해두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예전」이라고 하는문자의 시각적 세계에도 기분을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 새로운 발명 속에는 옛 것을 아는 실마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온고지신」이 아닌 「온신지고」라고 명한다.

**50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雛の調度。蓮の浮葉のいとちひさきを、池より取りあげたる。葵のいとちひさき。なにもなにも、ちひさきものはみなうつくし。」(히나 인형 도구. 연못에서 건진 연꽃 잎. 매우 작은 해바라기. 무엇이든 작은 것은 다 귀엽다. 「마쿠라노소오시」 세이쇼나곤)

일본의 고전에 나오는 이 대목은 일본과 일본인의 「작은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하여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80년대 초 일본에서 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화제작. 이어령 씨의 「축소 지향의 일본인」은 그 「작은 것」에 대한 일본인의 이러한 집착에 대해 분석하고, 지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일본의 지식인사회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축소지향」을 버리고 「확대지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기부정임과 동시에, 즉 주변국을 상처 입혀 자국을 파멸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종전으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5년, 작고 귀여운 일본제 트랜지스터가, 눈깜짝할 새에(파죽지세로) 세계시장을 점령하면서, 경제시장에 우뚝 설 준비를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케다 총리를 향해 「트랜지스터 상인」이라고 말한 것도, 그것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자국의 발명품도 아닌 「작은 것」이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善)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큰 것」은 그와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튼 저택은 집 전체의 면적이 21000㎡ 정도 되지만, 가장 작은 집은 4㎡를 넘는 정도이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차는 6t을 넘지만 9.5kg밖에 안 되는 가장 가벼운 차도 있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물론 선악의 개념에 있어서도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 일본인가 가장 많이 사는 다세대는 13평, 그리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는 소형차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계속 「확대지향」만 반복해왔다. 넓은 아파트와 큰 자동차에 타는 것은, 즉 신분상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작은 다세대로 이사하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거나, 큰 자동차에서 작은 차로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지만, 이러한 풍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확대지향이 곧 자기부정이 되는 일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건, 기본인식으로써 집, 자동차는 물론 소비까지도 줄이는 것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51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자 (1)**

포인트

국회의원의 일은 무엇일까? 뭔가 정치헌금 등의 뇌물사건이나 뒷돈 공작에 의한 독직(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국정에 반영, 또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여러 법률을 정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의원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중의원의 의석 수는 511석으로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내각을 짜서 행정에 임한다.

본문

국회토론①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가라는 단위이다. 보다 건전하고 풍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논의해주길 바란다.

<산더미처럼 쌓인 의제>

1 국민의 자신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한다.

2 아파트 가격을 반으로 낮춘다.

3 경범죄법을 강화한다. (쓰레기 무단투척 벌금 10만원)

4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는 한 명까지만 낳게 하는 산아제한.

5 젊은 여성의 미니스커트 의무화.

6 노래방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7 모든 대학은 졸업시험제도를 시행한다.

8 치안유지를 위해 야간외출금지령 발령.

여당 – 뭐든지 찬성 / 야당 – 뭐든지 반대

**52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자 (2)**

포인트

국회의원의 일은 무엇일까? 뭔가 정치헌금 등의 뇌물사건이나 뒷돈 공작에 의한 독직(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국정에 반영, 또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여러 법률을 정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의원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중의원의 의석 수는 511석으로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내각을 짜서 행정에 임한다.

본문

국회토론②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가라는 단위이다. 보다 건전하고 풍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논의해주길 바란다.

<산더미처럼 쌓인 의제>

1 외제 가전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 미국처럼 권총 소지를 자유화한다.

3 남녀평등을 완전 실현하기 위해 여성도 군대를 의무화한다.

4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5 유산의 50%를 나라에서 세금으로서 몰수한다.

6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내각제로 한다.

7 노동시간급료제를 시행하여 빈부격차를 없앤다.

8 여성의 노동능률을 높이기 위해 단발 파마를 의무화한다.

여당 – 뭐든지 찬성 / 야당 – 뭐든지 반대

**53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자 (3)**

포인트

국회의원의 일은 무엇일까? 뭔가 정치헌금 등의 뇌물사건이나 뒷돈 공작에 의한 독직(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국정에 반영, 또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여러 법률을 정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의원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중의원의 의석 수는 511석으로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내각을 짜서 행정에 임한다.

본문

국회토론③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가라는 단위이다. 보다 건전하고 풍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논의해주길 바란다.

<산더미처럼 쌓인 의제>

1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린다.

2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한다.

3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한다.

4 의무교육제도를 철폐한다.

5 금주령 및 금연령을 발령한다.

6 국력증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7 관광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외여행을 규제한다.

8 풍기를 지키기 위해 남성의 장발을 금지한다.

여당 – 뭐든지 찬성 / 야당 – 뭐든지 반대

**54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오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8%A4%EC%9D%B4)**를** [**거꾸로**](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A%B1%B0%EA%BE%B8%EB%A1%9C)[**먹어도**](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8%B9%EB%8B%A4) **제 멋) (1)**

포인트

「여뀌」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강변•습지에 자생, 여름•가을에 홍녹(紅緑)의 작은 꽃이 이삭모양으로 열린다. 줄기•잎은 맵고, 모종은 회에 곁들이는 야채용•식용.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이라는 속담은 매운 「여뀌」 잎도 좋다고 먹는 벌레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질문명 덕에,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성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대.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가치관을 목표로 서로 토론을 나누었으면 한다.

본문

토론①

A팀, B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고 선생님이 승패를 정합니다.

<A팀> <B팀>

1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2 남자가 이득인가? 여자가 이득인가?

3 OL(여사무원)이 좋은가? 주부가 좋은가?

4 아이를 낳지 않는 주의가 좋은가? 아이가 많은 것이 좋은가?

5 동양인이 좋은가? 서양인이 좋은가?

6 샐러리맨이 좋은가? 트럭 야채 장수가 좋은가?

7 남쪽 나라에 사는 것이 좋은가? 북쪽 나라에 사는 것이 좋은가?

**55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오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8%A4%EC%9D%B4)**를** [**거꾸로**](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A%B1%B0%EA%BE%B8%EB%A1%9C)[**먹어도**](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8%B9%EB%8B%A4) **제 멋) (2)**

포인트

「여뀌」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강변•습지에 자생, 여름•가을에 홍녹(紅緑)의 작은 꽃이 이삭모양으로 열린다. 줄기•잎은 맵고, 모종은 회에 곁들이는 야채용•식용.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이라는 속담은 매운 「여뀌」 잎도 좋다고 먹는 벌레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질문명 덕에,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성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대.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가치관을 목표로 서로 토론을 나누었으면 한다.

본문

토론①

A팀, B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고 선생님이 승패를 정합니다.

<A팀> <B팀>

1 안경이 좋은가? 콘택트렌즈가 좋은가?

2 여행은 산에 가는 편이 좋은가? 바다에 가는 편이 좋은가?

3 결혼은 빠른 편이 좋은가? 아니면 늦게 가는 편이 좋은가?

4 스파르타 교육이 좋은가? 방임주의가 좋은가?

5 섹시한 여성이 좋은가? 아니면 보이쉬한 여성이 좋은가?

6 남편은 빨리 집에 돌아오는 편이 좋은가? 늦게 돌아오는 편이 좋은가?

7 한국인은 사치스러운가? 아니면 검소한가?

**56 긴급사태 시의 인간심리 분석**

포인트

법률에는 「긴급피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다에서 조난하여 한 명 밖에 못 타는 구명보트에 여러 명이 몰려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었다고 해도 그것을 「정당방위」와 동일하게 여기고 죄를 묻지 않는다. 인간은 어지간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긴급사태 시에는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라는 말을 느긋하게 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사고•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를 덮쳐올지 모른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자 한다.

본문

난파선

호화여객선 「무궁화호」가 전세계의 왕족•귀족•부자를 태우고 태평양 위에 두둥실 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엔진이 고장 나 선내는 바캉스 기분에서 패닉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 중에는 보트에 탄 두 젊은 남녀(당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기정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에메랄드그린의 작은 무인도에 표류한 것이었다.

**57 듣기 실력을 시험해보자 (1)**

포인트

어학 공부의 세 기둥을 꼽자면 독해력과 회화력, 그리고 청해력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해는 잘 하고, 어느 정도 일상회화도 잘 하는데, 듣기만 했다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자신을 잃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외국어를 아기 때부터 귀로 익힌 것이 아니라, 활자를 통하여 눈으로 익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억만장자 게임」으로 당신의 듣기 실력을 시험해 보자! 25개 장르를 통달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만물박사」가 될 것이다!

본문

억만장자 게임①

1 회사 : JR은 무엇의 약자?

2 음악 : 비틀즈의 멤버 중 지금 없는 사람은?

3 수도 : 부다페스트는 어디의 수도인가?

4 국가 : 세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는?

5 편지 : 시작할 때는 「拝啓」, 그럼 마칠 때는?

6 문학 : 「전쟁과 평화」는 누가 썼는가?

7 한자 : 1+1=? 무슨 한자?

8 바람 : 피카소는 몇 살까지 바람을 피웠습니까?

9 별자리 : 여름에는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볼 수 없는 별자리는?

10 한국 : 올해는 단기 몇 년?

11 동물 : 낙타는 혹만으로 며칠이나 살 수 있나?

12 역사 :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한 역사학자는?

13 술 : 술을 한 번에 다 마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14 스포츠 :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요코즈나가 된 스모 선수는 누구?

15 여행 :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큰 폭포의 이름은?

16 수학 : 1+2+3+4+5+6+7+8+9=?

17 경제 :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18 요리 :스테이크의 굽는 정도는 웰던, 미디엄, 그리고?

19 진미 : 세계 3대 진미는 트뤼프, 포아그라, 그리고?

20 오락 : 음악과 화면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움직이는 게임은?

21 종교 : 예수, 부처, 공자, 마호메드 중에 누가 가장 먼저 태어났는가?

22 건강 : 졸릴 때는 커피, 그럼 졸리지 않을 때는 무엇을 마시면 좋은가?

23 정치 : 일본의 원폭에 대한 비핵 3원칙이란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와 무엇?

24 우주 : 인류 중 처음으로 우주에 가 「지구는 푸르렀다」고 말한 건 소련의 누구?

25 과학 : 이산화망간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하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58 듣기 실력을 시험해보자 (2)**

포인트

어학 공부의 세 기둥을 꼽자면 독해력과 회화력, 그리고 청해력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해는 잘 하고, 어느 정도 일상회화도 잘 하는데, 듣기만 했다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자신을 잃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외국어를 아기 때부터 귀로 익힌 것이 아니라, 활자를 통하여 눈으로 익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억만장자 게임」으로 당신의 듣기 실력을 시험해 보자! 25개 장르를 통달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만물박사」가 될 것이다!

본문

억만장자 게임②

1 문학 : 「빙점」은 누가 썼습니까?

2 정치 : 「노기법」은 무엇을 줄인 말인가?

3 기록 : 요코하마의 랜드마크 타워는 지상 몇 층?

4 습관 : 정월 초하루에 청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5 생활 : 탄 식빵의 이용법은?

6 도시 : 미국의 수고는?

7 즉답 : 토마토를 거꾸로 읽으면?

8 달력 : 11월을 몇일까지 있는가?

9 한국 : 한국에서 반드시 미역국을 먹는 건 무슨 말?

10 건강 : 굴은 「바다의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11 초밥 : 초밥집에서 쓰이는 「なみだ」는 무엇을 말하나?

12 건물 : 뉴옥의 리버티 섬에 있는 우뚝 서 있는 상(像)은?

13 영화 :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제목은 「7인의 ?」인가?

14 위반 : 경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약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15 노래 : 매년 섣달그믐에 NHK에서 방송되는 장수 노래 방송은?

16 행사 : 2월 세츠분에는 「도깨비는 밖으로」라며 무엇을 뿌리나?

17 환경 :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맹독성의 유기염소화합물이란?

18 영양 : 비타민 A나 B 등의 A, B는 무엇에서 붙는 이름인가?

19 통역 : 2개국어가 가능한 것은 바이링걸. 그럼 다국어는?

20 인물 : 야수로서는 일본인 중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입단한 것은?

21 철도 : 나리타 공항에서 우에노 역까지 1시간만에 갈 수 있는 급행열차는 무엇?

22 역사 : 청소년 한정으로 일하면서 관광여행을 인정하는 제도는?

23 언어 : ‘Fox Sleep’이란 자는 척이란 의미인데, 일본에서는 여우가 아니라 어떤 동물?

24 스포츠 : 축구에서 한 명의 선수가 한 시합에서 3점 이상 득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25 회사 :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계약사원으로 개가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은?

**59 현대는 「웅변이 금」인 시대!**

포인트

「좀체 일본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상담을 학생들에게 자주 받습니다만, 문법도 잘 알고, 문형 연습도 잘 하고, 그리고 표현이나 단어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어 회화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국어 실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 웅변은 은」이라는 것이 있다만, 국제정보화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짓밟혀서, 나중에 분해서 이를 갈게 될 분이다. 「웅변대회」에서 당신의 일본어회화 실력을 더 갈고 닦자!

본문

웅변대회

이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동야에서는 「이심전심」이 미덕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교섭력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 재밌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논리정연한 웅변력을 익히자.

**60 이런 테마로 즐거운 대화를**

포인트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무지로부터는 어떠한 감정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회화도 그럴 것이다. 관심이 없거나, 그 테마에 대해 무지할 경우, 그냥 듣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즐거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연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지가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서로 내가며 이야기를 발전해가자! 본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어울릴만한, 즐길 수 있는 회화 테마 100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여러 테마로 회화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일본인 교사를 필두로 회화 클래스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회화 테마를 정할 때,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좋은 교재 만들기에 힘서주십시오.

1 지금 관심 있는 것 26 더러운 벌레•동물 51 남편의 단신부임

2 여성다움이란? 27 건강관리에 대하여 52 혈액형 점

3 수학여행의 추억 28 실업자 문제 해결 53 장래희망 실현

4 대도시에서의 생활 29 정신적인 사랑과 돈 54 남녀 비교연구

5 언론의 보도와 책임 30 한일 습관의 차이 55 아빠의 사랑•엄마의 사랑

6 TV문화수준 31 살기 편한 집의 조건 56 빠칭코 도박

7 신체장해자 문제 32 방문판매의 시비 57 결혼 전과 후

8 본심과 겉모습 33 포르노 잡지•영화 58 마약 박멸 작전

9 100점을 따냈을 때 34 국민의 정치 의식 59 돈이 되는 장사

10 요리가 맛있는 가게 35 과학 발전의 의의 60 효도란 무엇?

11 우성유전•열성유전 36 일본여성•한국여성 61 미인은 행복한가?

12 여성의 행복이란? 37 아이 육아법 62 결혼사기에 주의

13 한일 역사 비교 38 올림픽의 의의 63 화를 잘 내는 사람

14 아시아와 미국의 문화 39 사랑하는 마음과 이성관 64 고대 문명은 존재?

15 아이의 영재 교육 40 일본인의 집단의식 65 파란만장한 인생

16 치한 심리 분석 41 보너스의 용도 66 신비한 체험담

17 변해가는 한국 42 소년 시절의 추억 67 병의 예방

18 폭주족과 야쿠자 43 외국인노동자 68 국방과 징병제

19 우익과 좌익의 투쟁 44 최근의 흉악사건 69 학교 성적

20 UFO 존재의 유무 45 성공한 결혼 예 70 빈부격차의 해결

21 남자의 바람방지법 46 가계부를 쓰다 71 나의 특기요리

22 눈물 자아내는 슬픈 이야기 47 무서운 이야기 72 한계에 도전

23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48 관혼상제 상식 73 신상품 마니아

24 대학 교육 개혁 추진 49 불쾌한 통근 열차 74 냄새와 생활

25 잊을 수 없는 선생님 50 세계의 화장실 비교 75 존경하는 인물

76 러브레터

77 국제결혼

78 감사의 생활

79 신화의 세계

80 여자의 히스테리

81 장래희망

82 그리운 노래

83 성형수술 실패

84 새로운 일

85 도시락 반찬

86 영화와 인생관

87 연중행사

88 데이트 성공률

89 부자와 결혼

90 천재와 범인(凡人)

91 세계의 나라

92 도둑질 재능

93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94 며느리와 시어머니

95 로봇 사회

96 클럽 활동

97 자전거

98 십인십색

99 붐

100 「행복」이란?